

광주 불법 성매매업소 근절 안되는 이유 보니

임대 건물주 '발뺌하면 그만' 소극적 경찰 '수사하다 그만'

경찰이 성매매 업소가 입주한 건물과 관련해 해당 건물주에게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할 수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과 강남구가 해당 건물주에 대한 질거·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한 성매매 단속 효과를 본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성매매 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과 자치단체가 공조해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59건(181명 입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지만 오피스텔 등을 성매매 장소로 빌려준 건물주에 대한 처벌 사례는 전무하다.

지난해에도 경찰의 성매매 업소 적발 건수는 225건(727명)에 달했지만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제공해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사례가 없는 것으로 광주지방경찰청은 설명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에 해당, 건물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도 지난해 이같은 점을 전국 지방청에 통보하고 업소 단속을 한 뒤, 건물주에게 "당신 건물에 입주한 업소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취

성매매 알선 처벌 가능해도
임대 어렵다며 미온적 대처
경찰·자치체 적극 공조 필요



지로 통보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성매매하는 줄 몰랐다"며 발뺌하는 건물주에게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 불법 성매매업소를 근절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하더라도 건물주가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성매매 업주들의 경우 업소명을 바꾸고 명의자를 달리해 임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이 수사를 통해 건물주들이 자신의 건물에 성매매업소가 입주한 지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성매매업소만 단속해 온 것도 사실이다.

광주중부경찰이 최근 오피스텔 원룸 5개를 빌려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해온 혐의로 적발한 강모(30)씨의 경우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는 적발된 뒤에도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으며, 경찰은 당시 건물주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자에게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쳤다.

김모(50)씨도 지난해 13일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동부경찰에 입건된 뒤 지난해 31일 같은 혐의로 재적발됐다. 경찰은 다만 당시 김씨가 입주한 건물주에게 경고한 점을 들어, "해당 업소가 다시 성매매하는 줄 몰랐다"는 건물주의 부인에도 입건기로 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6개 여성단체가 지난해 10월 광주지역 10개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등 처벌을 요구, 수사기관에 고발했지만 정작 4명만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 적발 때마다 해당 업소가 입주한 건물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만 '성매매하는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수사 인력 대비 관할 구역 내 단속 대상 업소가 적지 않은 점도 충분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격리자에게 보낼 구호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원들이 23일 오후 광주시 북구 매곡동 적십자 구호창고에서 메르스 자가격리자에게 보낼 치약·치솔·수건·라면 등이 담긴 구호품 상자를 만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증선 뇌물' 해수청 전 간부·청해진해운 대표 무죄

항소심서 감형 잇따라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전 간부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60) 전 인천해양수산청 원원 해사안전과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김한식(73)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모

(60) 전 인천해수청 팀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과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김 대표의 경우 징역 1년6개월, 김 전 팀장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직원 1명만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공여자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박 전 과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공여자로 지목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은 돈을 줬다고 인정했다가 "유도신문에 따른 허위자백이었다"며 변복했다.

그 밖의 뇌물죄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증거부족, 1심 재판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은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감검사,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를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채용사기 브로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광주지방경찰청은 23일 사립고 교직원 채용 사기 사건과 관련, 채용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A(54·선거법위반 구속수감 상태)씨 자택과 양곡동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A씨가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70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점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같은 시기 통화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채용 사기 혐의 외에도 이권을 노리고 개인한정정장을 다수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1월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사립고 3곳에 응시원서를 내도록 권유하고 B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원 불만 구청서 소란 피운 30대 집유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23일 민원 상담 내용에 불만을 품고 구청을 찾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들을 다치게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40분께 바지 주머니에 삼단봉과 흥기를 꽂고 광주시 북구청 복지관리과 사무실을 찾아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하는 공무원들 2명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매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부실 구조' 전 목포해경 정장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구조로 비난받은 김경일(57·해임)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광주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김 전 정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승객들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만 했다면 모두 배에서 나와 어선이나 어업지도선 등에 의해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김 전 정장의 과실로 304명이 숨졌다"며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김 전 정장은 최후 진술에서 "짧은 시간에 배가 전복·침몰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123정 승조원은 한 명이라도 더 구

조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해 준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정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전 정장은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65만원 훔쳐놓고 "만원씩 나누자"

○~10대 여중생이 친구와 동네 미용실에서 훔친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거짓말로 1만원만 주고 대부분을 가로챈 것이 들통나며 먹구.

○~2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모중학교 3학년 A(14)양은 지난 17일 오후 6시30분께 광산구 산정동 이모(여·47)씨 미용실에서 친구 B(14)양이 이씨를 피부관리실로 유인한 틈을 타 이씨의 지갑에서 현금 65만원을 훔쳤다는 것.

○~A양은 경찰에 불집힌 뒤 훔친 돈 65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궁하자 B양에게는 '지갑에 돈이 2만원 뿐이다. 만원씩 나눠 갖자'고 속인 뒤 '염색과 파마 비용으로 썼다'고 실토. /박기용기자 pboxer@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100평/즉시입주가〉

평수 100평 (분할가능) 5층 전체사용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 1.현 학원 운영중
- 2.상무지구 제일 저렴한 사무실
- 3.시설완비 / 에어컨 2대 내부 깔끔
- 4.시설비 4천만원등 시비 약간 있음
- 5.엘리베이터 완비, 주차 3대무료
- 6.금융가도로 바로 이면코너

010-7384-7800 / 010-6670-9800

법원경매(주)대신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추천 특수물건
1.서구 금호동 7중7동(토180㎡, 건285㎡)감평가 6억6천 - 최자가 2억9천 2.광산구 월계동(토42㎡, 건135㎡)감평가 2억 - 최자가 1억4천(합동상가) 3.서구 차평동 (토44.77㎡, 건257.71㎡)감평가 6억1천 - 최자가 4억3천	1.서구 화정동 (근린주택) (토150㎡, 건276㎡) 1층주차장(10대7기)/2층음식점 3층노래연습장/4층주택 감평가 12억 - 최자가 8억4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1.서구 화정동(토150㎡, 건276㎡)감평가 12억 - 최자가 8억4천 2.전남 순천 인제동(토406.8㎡, 건1119.76㎡) 감평가 13억 - 최자가 9억 3.담양 남면(토1427㎡, 건1251㎡)감평가 32억 - 최자가 7억4천 4.북구 무림동 3층(토60㎡, 건154㎡)감평가 4억 - 최자가 4억 5.남구 진월동 5층 (토161㎡, 건354㎡)감평가 2억 - 최자가 12억	2.북구 운암동 (근린주택) (토160㎡, 건283㎡) 개발기회추천 투자형 (1층상가, 음차점, 사무실~3층사무나) 감평가 8억5천 - 최자가 5억9천7백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근물) 1.화순읍 삼현리 2층(토736㎡, 건476㎡)감평가 7억 - 최자가 4억(롯데대비) 2.동구 대인동 (토780.2㎡, 건1992.57㎡)감평가 24억1천 - 최자가 14억 3.순천 4층건물 (토205㎡, 건221㎡)감평가 4억2천 - 최자가 3억	3.광산구 신가동(주유소) (토430㎡, 건170㎡) 신가병원 북동측 인근, 하남대교변 감평가 15억7천 - 최자가 11억
공장/모텔/주유소 1.광산구 신가동(토430㎡, 건170㎡)감평가 8억5천 - 최자가 5억9천7백(주유소) 2.전남 정성리(토2825㎡, 건614㎡) 감평가 41억 - 최자가 15억	4.동구 대인동(근린주택) (토236㎡, 건602㎡) 은행, 소방서, 우체국주변상권중심 (지하, 사무실, 1층정포/ 2층~4층사무실) 감평가 24억1천 - 최자가 14억
직원 구함 남, 여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기획 개발까지 배우실분!! 경매직원 구함, 경매 컨설팅 같이 할 직원 구합니다.	5.담양 남면 구산리(교육시설/펜션) (토1427㎡, 건1251㎡) 개발기회추천 투자형 감평가 32억 - 최자가 7억4천

010-7384-7800 / 010-6670-9800 / 062-226-4600

경매

실전교육반모집

경매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반 교육부터 ~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 개발기회까지) → 노후대비 적합

경매직원모집

경매컨설팅 같이 근무할 직원 모집합니다.

남, 여 직원 모집합니다!

부동산 기획개발까지 배우실분

062-382-5500 / 010-6832-9700